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8월호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2
1. 한일 무역 동향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5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6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9
1. 일본 무역 동향	9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2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4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19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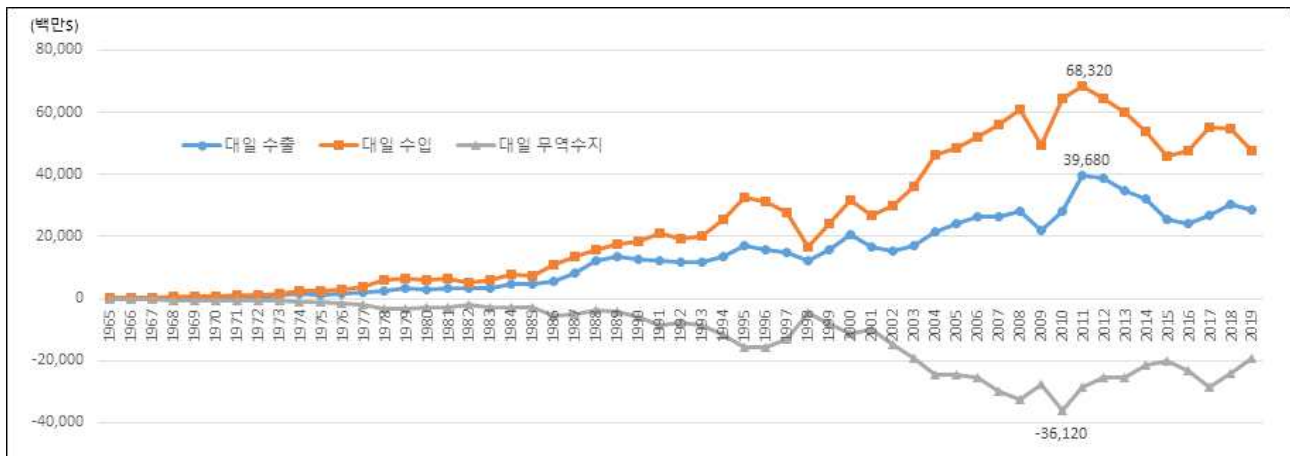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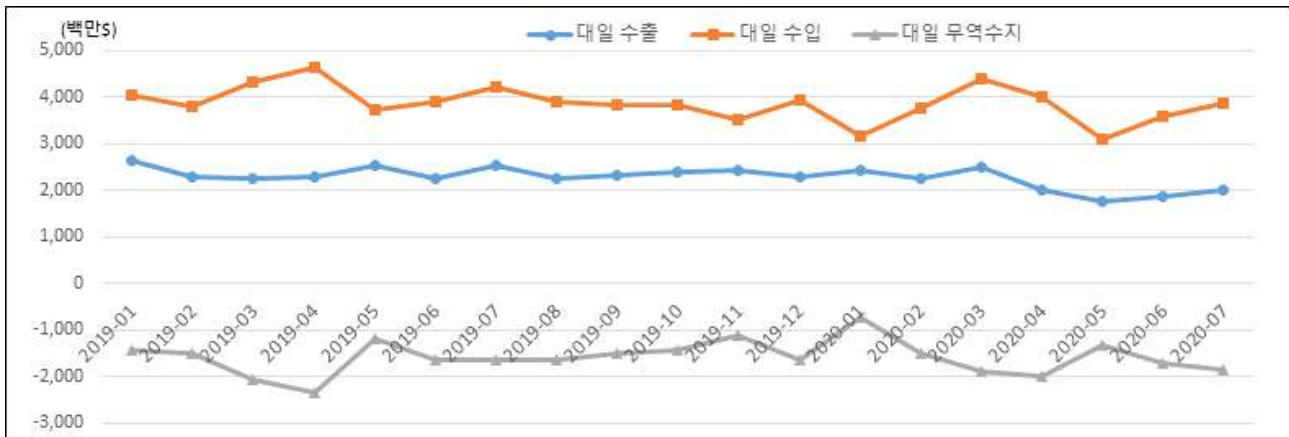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 및 7월에는 전월 대비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4월과 5월에 감소하였다가 6월과 7월에는 증가하였음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4월과 5월에 감소하였다가 6월과 7월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 감소하였으나 6월과 7월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0년 7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 (對日)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7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2,827	-7.1	38,693	-11.6	4,134
일본 부분	1,997	-21.6	3,860	-8.2	-1,863
일본 비중	4.7		10.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7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7.1%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21.6% 감소하여 20.0억 달러가 됨

- 2020년 7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1.6%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게 8.2% 감소하여 38.6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41.3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8.6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과 거의 동일하게 수출 경우는 4.7%였고, 수입 경우는 10.0%였음

○ <표2> 및 <표3>은 주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품목의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쪽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더 많았음

<표2> 한국의 2020년 7월 주요 대일(對日)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7월(백만\$, %)			2020년 7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545	0.1	-1,659	1,997	-21.6	-1,863
1	철강제품	368	3.1	-171	241	-34.4	-115
2	광물성연료	423	24.6	362	237	-44.1	216
3	정밀화학제품	171	-6.8	-246	194	13.1	-161
4	산업용전자제품	100	-29.5	-161	125	25.2	-110
5	전자부품	150	-5.1	-406	117	-21.6	-593
6	금속광물	68	-21.5	35	114	68.2	57
7	농산물	111	21.9	80	99	-10.9	78
8	석유화학제품	129	-36.1	-172	83	-35.8	-106
9	수산물	84	10.6	73	75	-10.8	64
10	기초산업기계	89	18.3	-113	71	-20.0	-128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7월 주요 대일(對日)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7월(백만\$, %)			2020년 7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204	-8.3	-1,659	3,860	-8.2	-1,863
1	전자부품	555	5.0	-406	710	27.9	-593
2	정밀기계	294	-38.4	-243	440	49.6	-397
3	철강제품	538	3.3	-171	356	-33.9	-115
4	정밀화학제품	416	-0.3	-246	355	-14.9	-161
5	산업용전자제품	260	-14.0	-161	235	-9.7	-110
6	플라스틱제품	204	9.8	-132	206	0.8	-140
7	기초산업기계	201	-22.5	-113	199	-1.0	-128
8	석유화학제품	301	-5.0	-172	189	-37.2	-106
9	수송기계	237	-13.1	-124	152	-35.7	-96
10	산업기계	194	-9.8	-107	151	-22.3	-89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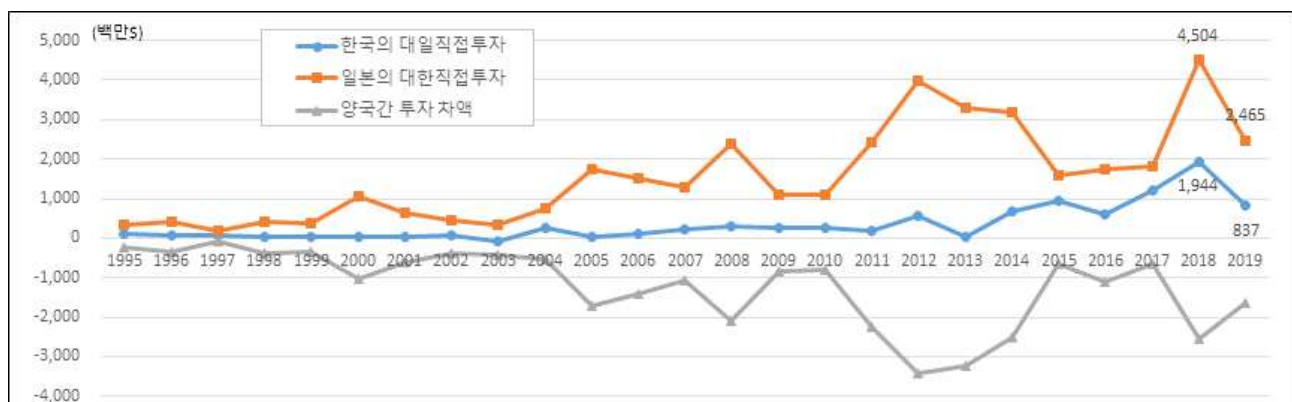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금속광물이 68.2%, 산업용전자제품이 25.2%, 정밀화학제품이 13.1%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광물성연료가 44.1%, 석유화학제품이 35.8%, 철강제품이 34.4%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정밀계기가 49.6%, 전자부품이 27.9%, 플라스틱제품이 0.8%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37.2%, 수용기계가 35.7%, 철강제품이 33.9% 감소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5,642	-244	13,468	2,740	29,737	47,762
한국 부분(억¥)	122	28	15	50	290	71
한국 비중(%)	0.8		0.1	1.8	1.0	0.1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6월 8일, 7월 8일, 8월 11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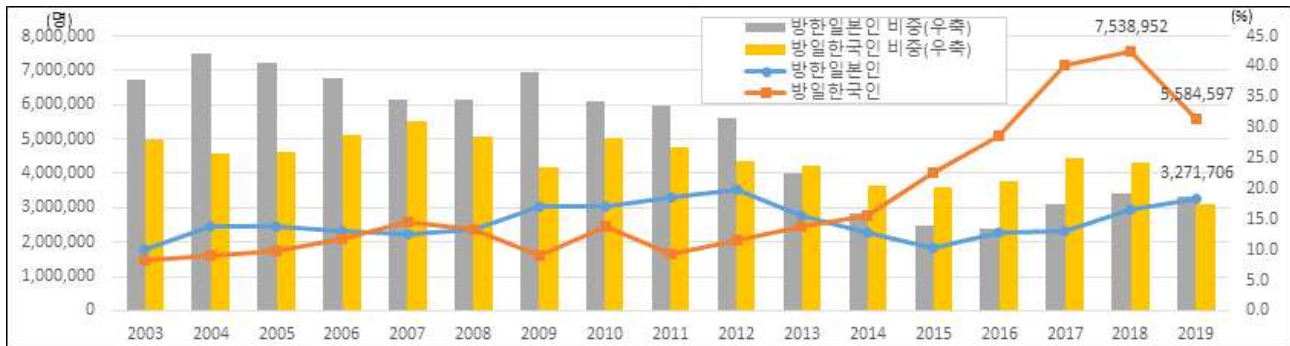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5월에는 13,468억 엔(실행 27,883; 회수 14,415)이었으나, 6월에는 29,737억 엔(실행 56,712; 회수 26,975)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5월 15억 엔(실행 232; 회수 217)에서 6월 290억 엔(실행 444; 회수 154)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서 1.0%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5월에는 2,740억 엔(실행 21,658; 회수 18,918)이었으나, 6월에는 47,762억 엔(실행 72,541; 회수 24,778)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50억 엔(실행 53; 회수 3)에서 71억 엔(실행 72; 회수 1)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 전체 대내 직접투자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국 비중은 1.8%에서 0.1%로 감소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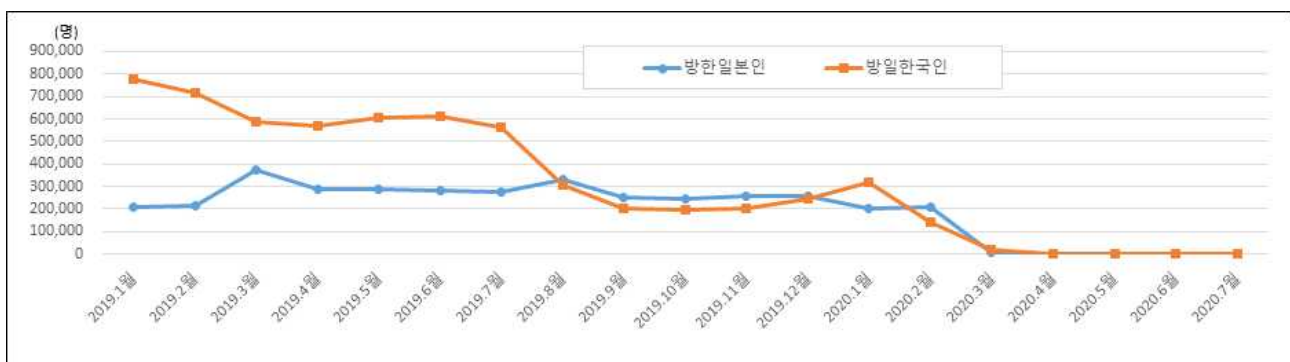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COVID-19 영향으로 방일한국인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00명, 7월 300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7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7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7월	2020년7월	증감률		2019년7월	2020년7월	증감률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1,448,067	61,012	-95.8	전체	2,991,189	3,800	-99.9
방한 일본인	274,830	755	-97.5	방일 한국인	561,675	300	-99.9
일본인 비중	19.0	1.2		한국인 비중	18.8	7.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61,01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5.8%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75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5%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7월 19.0%에서 2020년 7월 1.2%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3,8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3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7월 18.8%에서 2020년 7월 7.9%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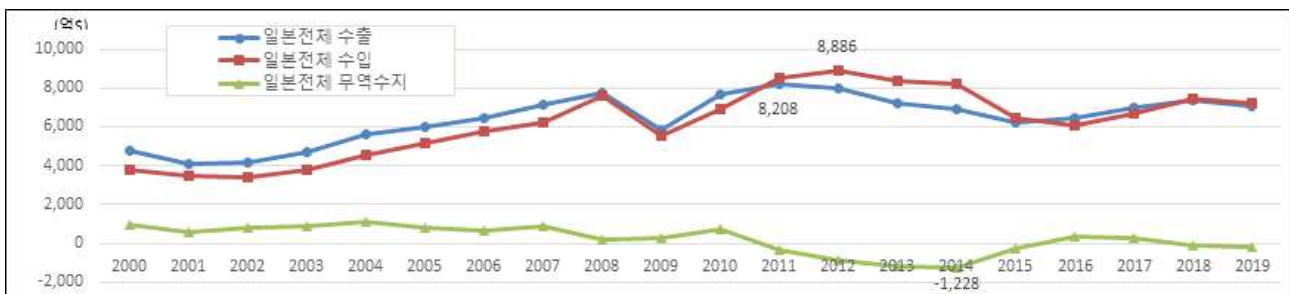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7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7월 상황

	2019년 7월	2020년 7월	증감률
수출(백만¥, %)	6,643,460	5,369,179	-19.2
수입(백만¥, %)	6,897,341	5,358,246	-22.3
수지(백만¥, %)	-253,881	10,93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8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부분품(部分品), 선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9.2% 감소하여 5조 3,692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2.3% 감소하여 5조 3,582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2,539억 엔의 적자였으나, 7월에는 109억 엔의 흑자였음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7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7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5,369,179	100.0	-19.2	5,358,246	100.0	-22.3	10,933	-
아시아	3,176,310	59.2	-8.2	2,838,376	53.0	-13.5	337,934	86.3
중국	1,329,111	24.8	8.2	1,456,488	27.2	-9.8	-127,377	-66.9
홍콩	284,978	5.3	-7.5	6,729	0.1	-31.4	278,249	-6.8
대만	384,601	7.2	5.8	235,225	4.4	-5.9	149,376	31.5
대한민국	374,284	7.0	-14.2	217,035	4.1	-21.3	157,249	-1.8
싱가포르	146,952	2.7	-13.1	88,344	1.6	12.6	58,608	-35.3
태국	174,314	3.2	-35.9	191,057	3.6	-24.8	-16,743	-
말레이시아	99,798	1.9	-24.0	139,895	2.6	-15.2	-40,097	18.7
인도네시아	54,858	1.0	-60.1	131,598	2.5	-27.0	-76,740	79.5
필리핀	75,377	1.4	-26.5	89,035	1.7	-13.4	-13,658	4753.8
베트남	148,104	2.8	-2.8	189,919	3.5	-17.9	-41,815	-47.0
인도	65,304	1.2	-38.7	42,630	0.8	-2.4	22,674	-63.9
대양주	123,072	2.3	-36.8	367,260	6.9	-28.0	-244,188	-22.6
호주	103,341	1.9	-27.1	320,599	6.0	-30.2	-217,258	-31.7
뉴질랜드	13,150	0.2	-46.9	23,253	0.4	-20.2	-10,103	130.1
북미	1,141,328	21.3	-20.7	662,550	12.4	-25.1	478,778	-13.7
미국	1,091,372	20.3	-19.5	579,133	10.8	-25.4	512,239	-11.5
캐나다	49,955	0.9	-40.7	82,773	1.5	-23.1	-32,818	40.5
중남미	128,411	2.4	-58.2	213,285	4.0	-19.9	-84,874	-
서유럽	540,961	10.1	-32.5	749,578	14.0	-17.9	-208,617	86.0
독일	136,450	2.5	-27.5	193,624	3.6	-12.3	-57,174	74.8
영국	74,705	1.4	-50.8	50,025	0.9	-45.5	24,680	-58.9
프랑스	44,740	0.8	-29.8	77,980	1.5	-23.9	-33,240	-14.0
네덜란드	73,554	1.4	-31.6	22,372	0.4	-23.7	51,182	-34.5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05,123	2.0	-31.3	134,085	2.5	-28.8	-28,962	-18.2
중동	107,254	2.0	-46.2	322,659	6.0	-58.2	-215,405	-62.3
아프리카	46,719	0.9	-46.1	70,453	1.3	-14.9	-23734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8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9.2%, 수입의 53.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3,379억 엔으로 86.3%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4.8%, 수입의 27.2%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274억 엔으로 66.9%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7.2%, 수입의 4.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494억 엔으로 31.5%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0%, 수입의 4.1%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572억 엔으로 1.8% 감소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20.3%, 수입의 10.8%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5,122억 엔으로 11.5% 감소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27.5%, 수입이 12.3%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50.8%, 수입이 45.5%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7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가격	구성비	증감률
총액	5,369,179	100.0	-19.2	5,358,246	100.0	-22.3
1 식료품	65,681	1.2	4.7	566,691	10.6	-12.0
2 원료품	76,681	1.4	-7.0	353,540	6.6	-17.1
3 광물성연료	35,758	0.7	-70.4	747,361	13.9	-48.5
4 화학제품	660,525	12.3	-10.7	666,600	12.4	-8.6
5 원료별제품	566,841	10.6	-22.0	521,180	9.7	-17.4
6 일반기계	1,043,342	19.4	-17.7	604,095	11.3	-13.7
7 전기기기	1,037,730	19.3	-7.8	910,950	17.0	-9.6
8 수송용기기	1,082,315	20.2	-32.9	159,945	3.0	-47.1
9 기타	800,306	14.9	-11.4	827,884	15.5	-17.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8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식료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한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항목의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수송용기기(20.2%)가 32.9%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기계(19.4%)가 17.7%, 전기기기(19.3%)가 7.8%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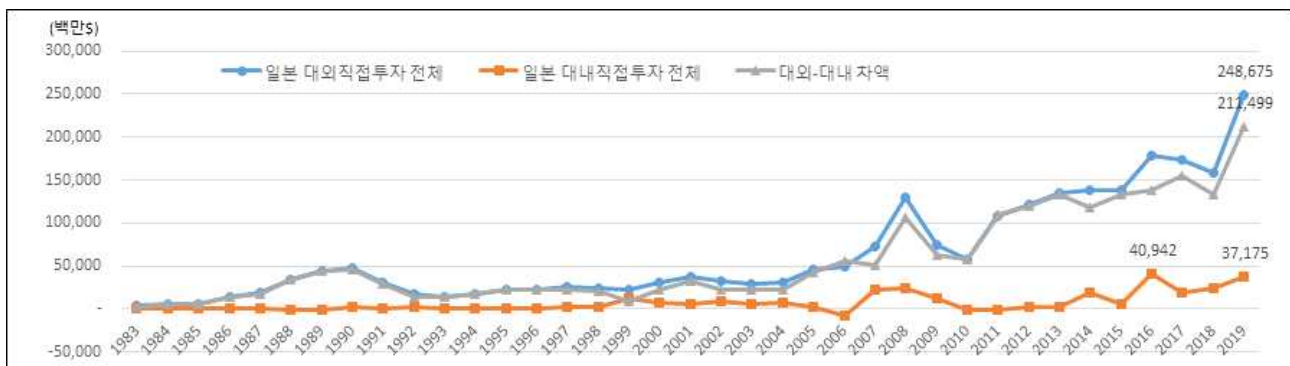
- 수송용기기에 속하는 자동차, 자동차부분품, 이륜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30.0%, 32.5%, 30.5%, 68.2%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전기기기(17.0%)가 9.6%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15.5%)가 17.6%, 광물성연료(13.9%)가 48.5%, 화학제품(12.4%)이 8.6%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석탄 등의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63.1%, 24.7%, 32.9%, 46.1%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6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와 대내직접투자 모두 플러스였으며 특이하게 후자가 전자를 능가하였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6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29,737	100.0	47,762	100.0
아시아	3,445	11.6	2,095	4.4
중국	599	2.0	111	0.2
홍콩	92	0.3	1,162	2.4
대만	102	0.3	34	0.1
한국	290	1.0	71	0.1
싱가포르	777	2.6	126	0.3
태국	554	1.9	584	1.2
인도네시아	322	1.1	2	0.0
말레이시아	75	0.3	-3	0.0
필리핀	115	0.4	2	0.0
베트남	276	0.9	0	—
인도	206	0.7	3	0.0
북미	11,721	39.4	15,406	32.3
미국	11,616	39.1	15,398	32.2
캐나다	106	0.4	8	0.0
중남미	2,480	8.3	-90	-0.2
대양주	12,620	42.4	-522	-1.1
호주	12,652	42.5	-515	-1.1
뉴질랜드	-31	-0.1	0	0.0
유럽	-487	-1.6	30,851	64.6
독일	-109	-0.4	123	0.3
영국	-159	-0.5	29,628	62.0
프랑스	-9	0.0	240	0.5
네덜란드	371	1.2	210	0.4
중동	-34	-0.1	21	0.0
아프리카	-10	0.0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8월 11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9,737억 엔(실행 56,975; 회수 26,975)으로 플러스였고, 전월 13,468억 엔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대양주(42.4%)와 북미(39.4%)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시아(11.6%) 비중은 낮았으며 유럽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호주에 대한 투자가 12,652억 엔(42.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11,616억 엔(39.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한편,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47,762억 엔(실행 72,541; 회수 24,778)으로 플러스였고, 전월 2,740억 엔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플러스로 큰 국가는 영국(29,628억 엔), 미국(15,398억 엔), 홍콩(1,162억 엔) 등이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마이너스로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975억 엔), 호주(-515억 엔) 등이었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8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8월 27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9.4% 증가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5월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속에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 경우에는 여행 취급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폭이 2개월 연속 축소되어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업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음
- 가전판매는 일시적인 변동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개인소비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19년 10-12월	2020년 1-3월	2020년 4-6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0.7	-1.8	-0.6	-7.8				
<개인소비> 소비종합지수(실질)	0.1	0.1	-3.0	-0.8	-8.5	-7.5	-2.1	9.4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9.5	-5.7	-12.7	-7.8	-21.2	-9.1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6.5 -9.4	86.3 -9.9	79.8 -12.7	79.7 -12.9	80.7 -12.3	79.0 -12.8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3.9	2.5	4.2	6.0	9.9	-0.3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3.8 -4.5	-5.5 -7.0	-25.1 -4.8	-21.3 1.5	-27.3 -14.6	-26.9 P -0.8	P -21.7 P -14.0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6.8	-4.5	-19.8	-15.0	-26.3	-18.2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4.6	-28.4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211 6.8	2,164 12.9	1,837 -11.4	743 15.1	314 -54.8	780 6.2	789 -1.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3	2.4	2.8	2.6	2.9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2 0.5	0.6 0.5	-2.2 0.1	-2.4 0.1	-2.8 0.1	-1.6 0.1	P -0.9 0.3
<금융> 넉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3,041 108.72	21,808 108.79	20,784 107.61	19,208 107.93	20,543 107.31	22,486 107.56	22,529 106.78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7월 및 8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 설비투자는 약세 기조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季報’ (1-3월期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설비투자는 2020년 1-3월期는 전기 대비 3.6%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7% 증가, 비제조업이 4.6%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6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에서는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감소, 전체산업에서는 증가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과잉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감소하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6월에 전월 대비 2.1% 감소하여 연율 79.0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건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6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3% 증가, 7월의 공공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2.1% 감소, 6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8.6%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건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최근 하락이 멈추었고,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됨
 -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미국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EU 쪽 수출은 감소가 멈추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감소가 멈추고 있는 중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을 살펴보면, 7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하락이 멈추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임
 - 6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의 감소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이 줄어들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일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1.9%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2.4%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7월은 전월 대비 11.3% 증가, 8월은 전월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하락이 멈추고 있는 중이며,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대략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임
 - 상장기업의 2020년 4-6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6.4%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1.4%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29.6%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7.7%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크게 저하되었고, 9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에 비해 약간 신중한 전망으로 나타났음
 - 도산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는데, 6월 780건, 7월 789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6월 1,288억 엔, 7월 1,008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6월에 전월 대비 0.1% 낮아져 2.8%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신규 구인 수도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대폭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상태임
 -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7월 국내기업물가는 소비세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고, 하계 전력요금 조정 후에도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
 -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7월에는 전월 대비 2.2% 포인트 상승하여 73.7%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 추세를 보임
- 주가는 22,700엔대에서 21,700엔대까지 하락한 후 23,200엔대까지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5엔대에서 104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6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5%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6.4%(7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9.8%(7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7.9%(7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8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8월 27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에 노력하면서,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COVID-19 및 각종 재해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
 - 감염증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의 상향이라는 양쪽을 동시에 추구함
 - 점점 심각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 생활, 고용, 사업을 지켜나갈 것임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감염증 확대로 생겨난 과제를 극복한 후 새로운 미래에서의 사회경제 모습에 대한 기본적 방향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통해 누구라도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제사회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주요 시책에 관해 정책목표와 그 스케줄 등을 명확히 한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책정함

-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4월 20일 閣議 결정) 및 제2차 보정예산(5월 27일 概算 閣議 결정, 6월 12일 국회에서 성립)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함
 - 국내외 감염증 상황 및 경제 동향,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함
 - 또한 2020년 7월의 호우와 관련하여 7월 30일에 마무리한 ‘피해자 생활과 생업의 재건을 위한 대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실행함
- 일본은행은 기업 자금운영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함
 -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TPP 11개국은 자유무역 추진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디지털경제전문기구 설치도 검토(산케이신문, 20.8.6)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은 6일 온라인으로 각료급 회의를 열었음
 - COVID-19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자유무역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음
 - 일본은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경제의 규칙 활용을 위해 TPP에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함
 - 성명에서는 신규 TPP 가입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지역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고 명기했음
 - 개회 인사에서 의장을 맡은 멕시코의 마르케스 경제장관이 보호주의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오픈 마켓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말했음
 - 데이터유통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에 관해서는 선진적인 무역협정인 TPP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COVID-19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굳혔음(NHK, 20.8.9)
 - COVID-19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 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을 굳힘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을 다루는 민관펀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와 의료기관 등에 융자해주는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를 연계한다는 것
 - 전문가 파견 등의 노하우를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가 경영 자문을 해주고, 자금 지원을 복지의료기구가 맡기로 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서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인재를 새롭게 확보하는 등 체제 강화를 도모할 방침
- 일본-싱가포르 외무상 회담에서 단기 출장자 등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COVID-19 감염방지를 위한 출입국 제한을 9월 초에 완화하는 방침에 합의(산케이신문, 20.8.13)
 - 양국 비즈니스 관계자는 입국 후 대기조치 기간 중에도 행동 범위를 제한한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기업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의 왕래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도입하는데, 일본은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출입국 제한 완화를 베트남 및 태국과는 시작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는 COVID-19 감염확대 이후 싱가포르가 처음
 -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리센룽 총리를 예방, COVID-19 대책협력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던 한국인 징용공 소송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법원에 의한 자산 압류 절차가 4일에 완료됨(요미우리신문, 20.8.2)
 -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정부는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한일관계가 보다 악화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징용공 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 한국 대구지방법원은 6월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 명령결정서를 일본제철 측에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개시했음
 - 일본정부가 재판 서류의 기업 송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이후 2개월을 경과해서 이번 달 4일에 효력이 발생됨

- 4일에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되어도, 일본기업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현금화까지는 일본제철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임
-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관리 엄격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신청으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7월 29일 설치되어 대립은 복잡해지고 있음

2018년	10월 30일	한국인 징용공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제철(당시는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확정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확정
2019년	1월 9일	원고 측이 일본제철과 한국철강대기업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표명
	5월 1일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
	12월 24일	아베수상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년 3개월 만에 회담을 하였으나, 징용공 문제의 골이 매워지지 않음
2020년	6월 1일	한국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에 공시송달 절차를 결정
	8월 4일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

- 전 징용공 소송, 자산압류에 대해 일본제철은 불복을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표명함(닛케이신문, 20.8.5)
 - 일본제철이 11일까지 한국 지방법원에 항고하면 매각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이 기각할 경우 일본제철은 재항고할 수 있음
 - 미야모토 카츠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4~6월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외교 교섭도 감안해 일본정부와 협력해 대처하며,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외교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태세임
 - 한국 측의 대응은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됨
 -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 국제센터에 제소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재판이나 중재는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실현성이 낮음
-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한 한국 전 징용공 소송에 대해 일본제철이 7일 대구지법에 불복을 제기하는 즉시항고서를 제출했음(닛케이신문, 20.8.7)
 - 일본제철 측에 자산압류 서류가 도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4일

생기자 일본제철 측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며, 지방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도 있음

- 일련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본제철의 항고가 인정되지 않고 현금화에 이르러도 원고에 대한 지급 시기는 가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 한국이 WTO 판단에 따라 일본산 밸브 고관세 조치 철폐(NHK, 20.8.19)
 -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제 공기압밸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19일 철폐했다고 밝혔음
 -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일본제 공기압밸브가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2015년 최대 23%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WTO에 제소했음
 - 2심 상급위원회는 작년 9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음
 - 경제산업성은 한국에는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으며,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해결 수속의 성과라고 코멘트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일본제 공기압밸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19일 없앤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의 최종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관세 조치를 철폐한 이유는 5년간의 조치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이고, 한국 국내 생산자로부터도 관세 조치의 계속을 요구하는 요청이 없었다고 함
- GSOMIA 자동연장 결정(아사히신문, 20.8.26)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25일 연장되었음
 - 파기할 경우의 통보 기한이 24일까지였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통보는 없었음
 - 협정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일 90일 전까지 양국 중 어느 쪽으로부터 파기 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됨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아이신정기는 산하의 연구 관련 3개사를 통합(닛케이신문, 20.8.6)
 - 환경 에너지 등 다분야를 연구하는 아이신·코스모스연구소(아이치현 카리야시)와 이무라재료개발연구소(동), 이무라·재팬(삿포로시)의 3사는 2021년 4월의 경영통합을 향해서 기본 합의했음
 - 아이신정기와 자회사인 아이신·에이·더블유(AW)의 한국 현지법인 2곳도 2021년

1월 경영통합에 기본 합의했음

- 웨미리마트가 아시아 시장에서 곤경에 처해 있음(닛케이신문, 20.8.7)
 - 축소되는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이 어렵고, 편의점 각사에 있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빠뜨릴 수가 없음
 - 5월 태국 최대 소매업체인 센트럴 그룹과 합작한 현지 편의점 운영회사의 지분 49%를 내놓고 사업을 라이선스 형태로 전환했는데, 이는 사실상 ‘철수’에 가까움
 - 태국에서 1호점을 1993년에 개업하여 태국 편의점 업계의 선구자로 평가받지만 두꺼운 현지화의 벽에 계속 가로막혔음
 - 경쟁사인 세븐일레븐은 태국 최대 재벌인 짜룽포카판(CP) 그룹과 손잡고 현지에서 약 1만 2000 점포를 거느리는 왕자로 성장했음
 - 세븐일레븐은 자본관계는 맺지 않고, 식품 조달이나 물류망 등 CP의 스케일을 활용했음
 - 웨미리마트는 중국에서도 합작 상대인 대만계 식품 대기업, 정상신 그룹과의 소송이 계속 되고 있음
 - 웨미리마트는 2014년 한국 파트너 기업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해외에서 최대였던 8,000여 개의 점포망을 한꺼번에 날린 바 있음
 - 웨미리마트의 해외 사업 재시작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이토츠크에게 달려 있음
 - 현재 TOB(주식 공개 매입)로 웨미리마트의 완전 자회사화를 목표로 하는 이토츠크이지만, 원래 웨미리마트 주식의 50.1%를 보유함
 - TOB가 성립하여 비상장화하면 이토츠크에게 있어서 자유도가 커짐
 - 웨미리마트는 원칙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점포를 전개해 왔는데,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가 눈에 띄어 전략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해외라고 해도 각국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은 십인십색이므로, 이토츠크가 온 세상에 둘러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편의점은 점포수를 늘리는 것으로, 상품 제조나 물류면의 효율을 끌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임
 - 점포의 상품 구색도 웨미리마트 간부에 의하면 식품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고 하는데, 섬유 상사로부터 출발한 이토츠크의 강점을 살린 상품개발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COVID-19의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상업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혼잡 상태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혼잡을 피하려는 대처가 퍼지고 있음(NHK, 20.8.8)
 - JR도쿄역전의 넓은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의 보행자 천국에서는 부동산 대기업인 미쓰비시지소(三菱地所)가 혼잡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대처를 시작했음
 - 11곳의 가로수에 설치한 센서로 사람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보행자천국이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가 화면상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됨

- 거리에 설치된 벤치와 테이블의 이용 상황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혼잡정보 공개는 10일 오전 9시까지 이뤄짐
- 이외에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은 그룹에서 운영하는 상업 시설에 대해서, 혼잡이 전망되는 날짜나 시간대를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등 혼잡한 상태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 혼잡회피에 대한 대처가 확대되고 있음



출처: https://camera.ai.optim.cloud/userVacancyRoomGroup?setting_group_id=74cee444-0def-49d0-866b-341569644204&function_id=01

주: CUIMOTTE는 미쓰이부동산이 운영하는 오피스 및 상업시설로 오사카 도심에 위치함

- 도요타자동차와 마쓰다는 13일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에 공동건설 중인 새 공장에 8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산케이신문, 20.8.14)
- 양사 모두 스포츠용 다목적차(SUV)의 생산 거점으로 할 계획으로, 최첨단 설비 도입 등에 총당함
- 총투자액은 23억 1,100만 달러이며, 연간 생산능력을 도요타와 마쓰다 모두 15만대로 예정되었음
- 생산을 담당하는 종업원을 이미 약 600명을 채용하고 있어, 최종적인 고용 규모는 최대 4천명으로 할 방침임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야후와 라인(LINE)이 합의하고 있는 경영통합을 2021년 3월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닛케이신문, 20.8.4)
 - COVID-19의 유행으로 10월로 잡았던 당초 일정이 늦춰졌지만 미국, 대만, 한국의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가 완료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끝날 것으로 전망됨
 - 양 회사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와 한국 네이버는 이날 LINE의 TOB(주식공개매수)를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 LINE은 상장폐지가 될 전망으로 일본 공정위의 심사가 9월 중순까지 승인될 전망이어서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TOB를 시작하기로 했음
 - 승인 이후 통합을 위한 여러 절차도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통합 후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절반씩 출자하는 회사 아래에 ZHD를 두고, 야후와 LINE이 ZHD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형태가 됨
 - 조직 재편 외, 인적 자원이나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해서도 소프트뱅크, 네이버도 포함한 4사에서 협의를 시작함
- CJ제일제당이 일본 식품공장을 인수해 냉동만두 등의 일본국내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닛케이신문, 20.8.4)
 - 미국에서도 냉동식품 업체를 인수하고 있어 한식의 해외전개에 잇달아 M&A를 시도하고 있음
 - ‘浪花ひとくち餃子 餃餃(チャオチャオ)(나니와 한입 만두 Chao Chao)’ 체인의 운영사였던 ‘餃子計画(만두계획)’의 식품가공 부분을 CJ가 2019년 7월 인수했음
 - 오사카, 후쿠오카, 군마, 아키타의 일본 국내 4공장을 얻어, 대기업 외식 체인을 비롯하여 AEON, 코스트코 등 유통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도 계승해 일본 시장에서의 본격 진출을 완수했음
 - CJ는 일본 및 미국 외 중국이나 유럽, 베트남에서도 매수나 현지기업과의 제휴로 판매 루트를 쌓아 올림
 - 일본 국내 시장 축소에 직면해 M&A로 해외 전개를 가속하는 모습은 일본 아지노모토와 겹쳐짐
 - 삼성그룹 사사에 따르면 CJ는 50년 전 아지노모토로부터 글루탐산나트륨 제조 기술을 배웠다고 하며, 한국 기업이 발흥기에 일본의 선진기업에 기술협력을 요청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음
 - 아지노모토와 CJ의 관계는 현재 라이벌 관계로 바뀌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비슷하나 시가총액에서는 아지노모토가 높음
 - 기업가치에서도 아지노모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M&A의 과실을 챙기는 중장기 성장전략이 필요함

- COVID-19로 한국 행상인 보따리상의 모습이 사라져, COVID-19 종식으로 풀뿌리 교역의 재개를 바라는 부관페리(마이니치신문, 20.8.5)
 - COVID-19의 감염 확대로 세계 각국에서의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를 연결하는 ‘부관 웨리’가 여객 수송을 중지하고, 두 도시를 오가는 한국의 ‘보따리상’들도 모습을 감추었음
 - 반세기 이상 지속된 풀뿌리 교역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로부터 감염 종식과 교류의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가 들림
 - 시모노세키시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 로비에서는 부관 웨리가 출발 및 도착하는 아침 저녁으로, 페리를 오르내리는 보따리상들이 짐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적인 광경이었음
 - 보따리상은 한글의 보따리 장사에서 온 통칭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1970년의 부관 웨리 취향으로 늘었다고 함
 - 예전에는 한국에서 들고 온 의류 등을 시모노세키에서 도매로 팔고, 일제 소형 가전 등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팔곤 했으며, 최근에는 고추와 우동의 분말 스프를 대량으로 구해가곤 했음
 - 부관 웨리는 COVID-19에 의한 영향으로 3월부터 여객이 중지되었고 재개 목표는 세워져 있지 않음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지 1년, 한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소재로 신공장 설립이나 한국 정부 주도 산업 지원 등 ‘탈·일본 의존’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음(닛케이신문, 20.8.24)
 - 한편, 일본 소재 업체는 한국에서의 생산 증가나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등 한국 업체와의 거래를 계속하려고 움직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였음
 -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 이후 반도체 재료 등 첨단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확대해 왔음
 - 한국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소재 업체에는 염려가 퍼지고 있음
 - 영향이 큰 것은 불화수소로 스텔라케미파에서는 2020년 3월기의 고순도 불화수소의 출하량이 이전 기 대비 30% 정도 감소했음
 - 불화수소는 2019년 11월 이후 한국 수출이 허용되긴 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80% 감소한 상태임
 - 반도체 메모리에서 세계 과반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한 소재공급은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많으며, 일본의 소재 메이커는 거래를 유지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신에쓰화학공업	특정 기업의 경우 3년간 개별수출허가가 불필요한 제도를 활용
도쿄응화공업	EUV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양산 개시
ADEKA	D램용 전자재료를 한국에서 생산 개시
칸토전화공업	반도체 회로의 형성용 재료를 한국에서 생산 개시
타이요홀딩스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절연 필름의 신공장을 한국에 건설
도소(東ソー)	반도체 제조장치용 석영유리 공장을 한국에 건설
JSR	벨기에에서의 합작사에서 EUV레지스트를 수출

-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잇따라 제조 공정에 한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 듀폰도 1월에 대상 품목인 EUV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 국내에 건설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한국 소재업체인 SK머티리얼즈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
- 대상 품목 이외에도 실리콘 웨이퍼에서 대만의 환구정원(環球晶門, 글로벌 웨이퍼즈)이 2019년 11월에 신공장 가동을 개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한국 업체들이 일본 의존을 줄이는 가운데 거래를 유지하려면 일본 업체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안정된 공급망을 제공하면서 품질 면을 높일 필요가 있음